

# 시부모 부양 며느리의 안녕감에 관한 연구

김 선 희 (강남대학교 교수)

## 제 1 장 서 론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노인의 장기부양(long-term care)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인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양제공자의 88.2%가 가족원이다<sup>1)</sup>.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관행이 노부모에 대한 아들의 부양 의식이 높게 기대되고 있어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들에 의한 시부모부양의 책임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 시부모부양 실태를 보면 일상생활(ADL) 수행에 있어서 부양제공자가 며느리인 경우가 60%이었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67.1%로 나타났다.<sup>2)</sup> 며느리들은 노인 부양에 있어 친자녀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거의 비자발적으로 시부모를 부양하거나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sup>3)</sup>

최근의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 및 가족부양자가 경험하는 부담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경향들은 주로 부양부담의 개념화, 양적 측정을 위한 부담척도의 개발이었고, 부양의 결과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관한 조사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서도 스트레스 요인, 매개요인 그리고 결과요인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아 부양에 관한 기존의 부담 및 스트레스 중심의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관점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4)</sup> 기존의 연구경향은 부양자가 경험하는 부담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부양의 부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경향이였다. 한편, 대안적 관점인 실존주의적 패러다임을 도입한 연구경향들은 부양의 긍정적 경험을 강조하고 긍정적 효과의 증대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노력들<sup>5)</sup>로서 부양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재개념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부양자의 안녕감을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속에서 이

1) 이가옥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4.

2) 앞글. p. 214.

3) 이신숙외(1993). 부양자 스트레스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pp. 48-49.

4) C. J. Carol. et al.(1991). Finding Meaning: an Alternative Paradigm for Alzheimers Disease Family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1:4, p. 483.

5) G. A. Hinrichsen, N. A. Hernandez, S. Pollack(1992). Difficulties and Rewards in Family Care of the Depressed Older Adult. *The Gerontologist*, 32:4, p. 488.

해하며 동시에 부양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양자의 인지, 감정 그리고 태도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시부모 부양 며느리들의 안녕감 증진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목적들은

1) 며느리의 안녕감에 미치는 시부모 특성요인들(신체적, 인지적 손상도, 경제적 의존도, 피부양기간)의 영향력을 규명한다.

2) 며느리의 안녕감에 미치는 며느리의 특성요인들(건강요인, 이타적 속성, 효도심, 친밀감, 실존적 신념)의 영향력을 규명한다.

3) 며느리의 안녕감에 미치는 부양상황적 요인들(가족경제력, 가족관계,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을 규명한다.

4) 며느리가 사용하는 대응전략(문제중심, 재구성, 회피/도피, 퇴행적)이 며느리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 제 2 장 선행 연구

### 1. 안녕감 개념 정의

‘안녕(well-being)’이란 개인의 지각 또는 총체적 감정을 강조하는 용어이다.<sup>6)</sup> 이러한 해석은 개인의 경험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재의 삶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안녕감의 측정은 안녕감에 작용하는 감정적, 인지적 요인의 고려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Fodyce는 안녕(well-being), 행복감(happiness), 삶의 만족도(life-satisfaction) 그리고 사기(morale)와 관련된 개념으로 보았고, 한편 Bachman et al.,도 안녕감 측정은 행복감, 삶의 만족도, 그리고 사기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안녕감에 작용하는 하위개념들을 제시하였다<sup>7)</sup>.

본 연구에서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자기통제감(self-control), 만족감(positive well-being), 활력감(vitality), 건강염려(worried about health)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sup>8)</sup>

### 2. 안녕감 관련 요인

#### 1) 시부모 특성요인

6) I. McDowell & C. Newell(1990).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p. 6.

7) C. T. Veit, J. E. Ware(1983).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p. 735.

8) H. J. Dupuy(1978). Self-representations of General Psychological Well-being of American Adults. Paper Presented at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Meeting Los Angeles, CA., Oct. 17.

(1) 시부모의 신체적, 인지적 손상도 : George 와 Gwyther는 노인의 증상의 심각성과 부양자의 안녕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했고, Poulshock 과 Deimling도 노인의 손상 정도와 부양자의 부담 및 우울간의 관계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입증했다. 만성적 손상노인을 대상으로 한 Schulz et al.도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sup>9)</sup> 그러나 Zarit et al.는 상기 두 요인간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Sheehan et al.는 노인의 ADL 의존도와 인지적, 행동적 손상도와 부양자의 긴장(strain) 및 도움의 양과의 관계를 입증했고 특히 인지적 손상도가 심할 수록 높은 긴장과 부정적 영향이 증가되었다.<sup>10)</sup> Silliman과 Sternberg는 ADL의존노인의 부양자는 신체적 건강문제를 호소하였고, 인지적 손상노인의 부양자는 우울증, 부담감 그리고 불안감을 경험하였다.<sup>11)</sup>

(2) 경제적 의존도 : 경제적인 조건은 노년기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필수조건이다. 노인들에게 있어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1인당 월 평균 수입액은 20만 9천원이며 월 평균수입액이 10만원 미만인 비율이 전체 노인의 26.8%이었다. 시부모가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가족으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우리나라 시부모 생활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장남-며느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71.6%로 나타났다.<sup>12)</sup>

(3) 피부양 기간 : Townsend(1986)의 '소모(Wear-and-Tear)'가설은 부양기간이 길어지면 노인의 손상도도 높아지고 부양자는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점차 적응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적응(Adaptation)가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응방법을 학습하게 됨에 따라 적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된다는 가설이다. 그리고 '성격특성(Trait)가설은 노인의 상태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부터 부양자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성격적 특성이 원인이 되어 적응력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sup>13)</sup>

Zarit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부양부담이 낮아진다고 했고, Motenko도 노인의 장애기간이 길 수록 부양좌절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Pyun은 역할 변화에 대한 준비과정에 의해 스트레스가 완충될 수 있다고 하였고, 역할변화에 대한 준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역할기대가 알려지고 가시적이며 친숙해지는 단계, 두번째 단계는 역할수행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 그리고 세번째 단계는 새로운 역할의 보상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단계이다.<sup>14)</sup>

## 2) 며느리 특성요인

9) L. Cattanach, T. J. Kreamer(1991). The Nature of Elder Impairment & Its Impact on Family Caregivers' Health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The Gerontologist*, 31:2, p. 246-247.

10) N.W. Sheehan, Paul Nuttal(1988). Conflict, Emotion and Personal Strain among Family Caregivers. *Family Relations*, Jan. p.94-95.

11) L. Cattanach, et al. p. 245-246.

12) 이가옥 외(1995). p. 203.

13) A. L. Townsend, S. W. Poulshock(1986).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on Impaired Elders' Support Networks. *Journal of Gerontology*, 41, p. 102.

14) Mary A. M. Pyun(1989). pp. 210-211.

(1) 신체적 건강요인 : 최혜경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담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sup>15)</sup> 박경란의 연구도 만며느리의 건강은 시부모와의 갈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고부간의 갈등이 만며느리가 경험하는 주관적 부양 긴장과 관계가 있었다.<sup>16)</sup> Pratt et al.는 부양자의 연령, 수입, 교육, 노인의 주거상태가 부담점수의 차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 반해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부양의 부담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sup>17)</sup> 이는 어떤 다른 개인적 특성변인보다도 건강요인이 부양자의 객관적 부담 및 스트레스와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반영해 준다.

(2) 이타적 속성 : Biegel & Blum의 연구는 부양행동이 부양자의 이기적 혹은 자기보호의 동기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이타주의(altruism) 혹은 감정이입(empathy)의 동기를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Batson과 Coke(1988)은 자녀의 이타적 속성은 부모의 욕구를 해소시키고자 할 때 부양의 동기유발에 영향을 준다. 즉 자녀가 부모의 입장이거나 복지에 부응하는 정서적 반응 즉 감정이입을 경험할 때 부양동기가 생긴다. 따라서 자녀의 이타성의 양은 감정이입의 양과 정비례하고, 이타적 동기에 의한 부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정서적 요인이므로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감정이입적 정서의 정도가 부양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3) 효도심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 기대는 세대간의 호혜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노부모가 도움의 욕구를 보일 때 부모의 욕구에 반응하는 자녀의 의무감은 부모부양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신념에 의해 동기화 된다. 이와 같은 신념은 어릴 때 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효도는 사회적 규범을 강조한다.<sup>18)</sup> George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상호성 규범 혹은 결속 규범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본다. 상호성 규범은 관계 속에서 득과 실이 동일해야 하는 반면 결속 규범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고려치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sup>19)</sup> Caffrey의 연구에서 상호성 규범에 따른 사람들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보호에 대한 보답 또는 자신이 미래에 타인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한 공적(merit)을 쌓고자 하는 관점을 반영하는 반면 노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적 보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자녀들은 친교적 관계의 특성과 결속의 규범에 의해 부양이 동기화 되었다.<sup>20)</sup> 사회적 규범이 강한 동기요인이었던 자녀들은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의 강한 압력을 의식하고 있거나, 기대되는 효도적 행동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의 죄의식, 체면상실 그리고 수치감을 경험하였다.<sup>21)</sup>

(3) 친밀감 : Cicirelli는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속적인 정서적 또는 애정적 유대와

15) 최혜경(1991). 심신기능 손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수발자 부담의 한국에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 p. 193.

16) 박경란(1993). 만며느리가 인지하는 시모 부양긴장 : 결정요인 및 매개변인 고찰, 한국노년학, 13, 1, p. 82.

17) C. C. Pratt, V. Schmall, S. Wright, Marilyn Cleland(1985). Burden and Coping Strategies of Caregivers to Alzheimer's Patients. *Family Relations*, 34, p. 27.

18) R. A. Caffrey(1992). Caregiving to the Elderly in Northeast Thai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7, pp. 128-130.

19) L. K. George, L. P. Gwyther(1986). Caregiver Well-being :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3, p. 72.

20) R. A. Caffrey(1992). p. 132.

21) 앞글. pp. 126-127.

이러한 유대에 의해 형성되는 애착감정이 부양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이라고 하였다. 애착감정과 같은 정서적 요인은 제공되는 도움의 정도 및 미래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sup>22)</sup> 애착심이란 심리적 친밀성과 접촉을 지향하는 개인적 성격속성 및 경향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애착심에서 유발되는 애착행동은 심리적 근접성과 접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에게 가까이 가려는 시도나 서로 가까워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노부모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그들의 생존을 연장시키고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도움에 수반되는 행동이다.<sup>23)</sup> 자녀가 성장할수록 애착대상에 접근하고 접촉하려는 애착행동은 감소되지만 애착대상에 대한 기대는 지속된다. 그리하여 애착대상인 부모가 취약한 상황에 놓일 때, 애착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긍정적 감정으로 반응하도록 하여 세대 간에 부양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된다.<sup>24)</sup> Bowlby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착의 대상을 보호하려는 보호행동으로 발달되며 위협적 존재로 부터 보호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이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고 하였다.

(4) 실존적 요인 : Farren은 신체적, 인지적 손상도가 높은 노인의 부양에 대응하는 인간의 내적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의미발견에 관한 Frankl의 실존주의의 4가지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sup>25)</sup> 첫째, 모든 인간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려 한다. 부양자가 되는 것은 부양자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실존적 선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의미발견을 위한 준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로서, 창조적 가치는 부양자가 부양경험에의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할 때 표현되며, 경험적 가치는 부양자의 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감정과 타인과의 관계를 증시하고 감사할 때 표현된다. 태도적 가치는 부양자가 지속적인 부양의 제공을 유지하게 해 주는 철학 및 개인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인간은 옳은 행동과 행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고로 인간의 삶이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끈임없는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한 책임의 수행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부양은 부양자가 되는 결정을 내리는 책임과 책임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모든 인간의 예비적, 궁극적 의미의 존재에 대한 가정이다. 부양자는 일상과업과 경험에서 삶의 의미를 주는 단기적이거나 잠정적인 의미 뿐 아니라 철학적 또는 영적 신념에서 비롯되는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Soelle는 의미발견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고통에 처한 사람은 말이 없고, 외로워하며, 무기력감(powerlessness)으로 인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2단계

22) V. G. Cicirelli(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p. 815.

23) V. G. Cicirelli(1981). *Helping Elderly Parents : The Role of Adult Children*. Boston, Mas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p. 20.

24) 전길향, 김태현(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3:1, p. 23.

25) V. E. Frankle(1963). *Man's Search for Meaning*; V. E. Frankle(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V. E. Frankle(1978). *The Unheard cry for Meaning*. N.Y. Washington Square Press: Farran et al.(1991). p. 484. 제인용.

로 진입하게 되면 현 상황을 수용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3단계에서 결속의 추구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무기력감을 수용하게 된다. 즉 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경험하는 방법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 단계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sup>26)</sup>

### 3) 부양상황적 요인

(1) 가족 경제력 : 부양가족의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이용 가능한 자원의 풍요함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족의 경제력은 낮은 부담수준과 높은 안녕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Walker et al.,(1983)의 연구에서 부양이 세대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던 딸들과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했던 딸들을 비교조사 한 결과 전자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규명되었으며<sup>27)</sup> 또한 Montgory et al.도 소득은 주관적 부양부담을 결정하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가족관계 : Cobb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란 애정, 존중심, 안정감 그리고 인정이란 4개의 단어로 표현된다고 하였다.<sup>28)</sup> 한편 Weiss는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비공식적 관계가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 중에서 배우자나 연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적 친밀감이나 안전감 등을 들 수 있고, 공통의 관심이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나누는 사람들의 집단에의 소속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감 및 타인의 안녕에 대한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29)</sup>

부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관계적 요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입증되었다. Flenger & Goodrich는 높은 사기(morale)를 보인 부양자는 낮은 사기를 보인 부양자보다 자녀와 다른 친척의 빈번한 방문과 도움을 받았고, Keane - Hagerty & Farran은 가족부양자의 42%가 도움을 주지 않는 다른 가족원에게 다소 증오심을 느낀다고 하였다.<sup>30)</sup> 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Cantor는 손상이 심한 노인의 부양자는 친밀하고 애정적인 가족결속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의 이해부족과 세대간의 갈등이 나타났고, 건강한 노인의 부양과는 달리 손상도가 심한 노인의 부양과 같은 위기상황은 가족간에 상처받은 감정이나 조정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불일치를 경험하게 하였다. 피부양자,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의 갈등을 야기하여 부양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sup>31)</sup>

(3) 사회적 지원요인 : 사회적 지원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26) D. Soelle(1975). *Suffering*(E. R. Kalin,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Farran et al.(1991). p. 484. 재인용.

27) A. J. Walker, L. Thompson(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p. 845.

28) B. D. Cooke, M. M. Roseman, H. I. McCubbin, J. M. Patterson(1988).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Social Support : A Resourc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p.211.

29) 이 원숙(1991). p. 38 재인용.

30) W. J. Strawbridge, M. I. Wallhogan(1991). Impact of Family Conflict on Adult Child Caregiver, *The Gerontologist*, 31:6, p. 770.

31) M. H. Cantor, V. Little (1985). Aging & Social Care. pp. 745-781 in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edited by R. Binstock and E. Shanas. NY: Van Nostrand Reinhold. p. 763.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Cantor는 사회적 지원의 초점은 제공되는 원조가 부양자 개인의 자신감과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sup>32)</sup>에 있다고 하였다. 특 치매노인 부양자들의 사회적 지원의 이용가능성은 부양자의 경한 정신의학적 증상, 우울증, 심리적 증상들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신체적 적응을 완화시켜 사회적 지원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의 양과는 역상관계이었다.<sup>33)</sup> 또한 실제적인 원조를 포함하지 않는 부양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접촉의 가용성은 심리적 안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sup>34)</sup>

#### 4) 대응전략 요인들

(1) 문제중심(problem-focused) 대응전략 : 부양상황의 요구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문제나 상황 중심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의 촉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방법의 모색, 문제가 주는 의미 또는 영적 지원의 추구 그리고 환경내 자원의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재구성(reframing) 대응전략 : 상황에 대한 인지의 재구성에 의해 문제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관대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거나 수용하기 용이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대응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3) 회피-도피(avoidance/evasive) 대응전략 : 부담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부터 피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대응전략들의 사용을 말한다.

(4) 퇴행적(regressive) 대응전략 : 미숙한 감정적 반응 및 행동을 나타내는 대응행동들로 구성되며, 다른 사람이나 물질을 이용한 대응으로서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응으로 구성된다.

Wright는 대응전략과 부양자의 부담 및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위의 4가지 대응전략 모두 삶의 만족도와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문제중심 및 재구성 대응전략과 부양부담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높은 수준의 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있었고 반면에 회피/도피, 퇴행적 대응전략은 높은 수준의 부담과 낮은 수준의 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있었다.<sup>35)</sup> 문제중심 대응전략은 현실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거나 직접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좌절감과 절망감의 수준이 높아져 소극적 대응전략 보다 오히려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더 부과하였다. 그러나 문제중심 대응전략은 부양자의 높은 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있었다.<sup>36)</sup> 반면 현실적인 변화가 가능한 상황 혹은 문제를 피하거나 부인하려는 회피/도피 또는 퇴행적 대응전략의 사용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안녕감이 저하되었다. 상황이나 문제와는 관계 없이 만성적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안녕감을 저해하는 대응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32) 앞글. p. 747.

33) R. Schulz(1990). Theoretical Perspectives on Caregiving. *Aging and Caregiving*. Sage Pub. Lit., p. 42.

34) 앞글. p. 43.

35) S. D. Wright, D. A. Lund, M. S. Caserta, C. Pratt.(1991). Coping & Caregiver Well-Being : The Impact of Maladaptive Strateg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7. p. 75.

36) 앞글. p. 87.

### 제 3 장 조사 방법

본 논문의 조사대상은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며느리 360명을 유의표집하여 이들 중 334명이 조사 완료되어 자료처리에 활용되었다. 조사지역의 선정은 서울지역의 28개구들을 단순무작위 표집방법에 의해 9개구를 표집하고 각구의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협조로 9개 동에서 유의표집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크게 다음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① 시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적 인지적 손상도, 경제적 의존도, 피부양기간 ② 며느리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상태, 이타적 속성, 효도심, 친밀감, 실존적 신념 ③ 부양상황적 특성인 가족 경제력, 가족관계, 사회적 지원 ④ 며느리의 대응 전략 ⑤ 며느리의 안녕감 등이다. 이 측정도구들은 각 항목별로 Chronbach's alpha coefficient에 의한 신뢰도 검증결과 최하 .717에서 최고 .954의 범위에 있다.

자료분석은 SPSS/PC<sup>+</sup>를 이용하였고 사용된 기법은 백분율, 빈도분석,  $X^2$ 통계검증을 실시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기법, 그리고 안녕감에 미치는 독립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 제 4 장 연구 결과 및 제언

#### 1. 연구결과의 요약

첫째, 며느리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시부모 특성요인은 시부모의 인지적 손상도로 나타났다. 시부모의 인지적 손상도를 제외한 신체적 손상도, 경제적 의존도, 그리고 피부양기간의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며느리에게 실제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안녕감에는 영향을 갖지 못하였다.

둘째, 며느리의 특성요인 중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은 주관적 건강요인이었고 그 다음은 친밀감, 실존적 신념, 그리고 객관적 건강으로 밝혀졌다. 객관적 건강보다 주관적으로 지각된 건강이 미치는 영향력이 컸고, 며느리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갖는 주관적인 감정인 친밀감과 부양의 긍정적 경험인 실존적 신념의 영향력이 유효하였다. 반면에 이타적 속성 및 효도심의 영향이 유효하지 않게 나타나 시부모 부양에 있어서 이타성의 비이기적 속성과 효도심의 사회규범적 속성이 안녕감의 영향요인으로 유효하지 못했다.

셋째, 며느리의 부양상황적 요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관계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시부모 부양며느리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가족경제력, 자녀관계, 여가활동의 순이었다. 객관적 가족경제력의 영향이 유효하지 않은 반면에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력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였다. 주관적 경제력이나 자녀관계보다는 부부관계 및 여가활동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넷째, 부양문제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려는 문제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인지적 대응은 시부모 부양며느리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구성대응전략이 미치는 영향은 유효하였고 반면 퇴행적, 회피/도피 대응전략은 안녕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퇴행적 대응전략의 사용은 부부관계의 만족도나 건강 및 경제적요인의 영향을 상쇄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요인들이 며느리의 안녕감을 추정함에 있어 5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적 설명력은 시부모 특성요인이 9.4%, 며느리 특성요인이 39.2%, 부양상황적 요인이 35.9%, 그리고 대응전략은 26%이었다. 며느리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군 중 며느리 특성요인들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은 부양상황적 요인, 대응전략, 그리고 시부모 특성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안녕감에 영향력을 가진 예측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행적 대응전략의 사용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현재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넷째, 가족경제력에 대해 주관적 평가는 어떠한가 다섯째,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갖는 친밀감의 정도는 여섯째, 재구성 대응전략의 사용수준은 어떠한가, 일곱째, 시부모 부양을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부양의 개인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덟째, 여가활동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아홉째, 회피/도피 대응전략의 사용수준은 어떠한가 등 이다. 따라서 시부모 부양 며느리의 안녕감은 객관적 상황이나 조건보다도 문제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첫째, 며느리의 인지적 특성을 명료화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

둘째, 부부체계의 강화를 통한 가족부양체계의 확립.

셋째, 며느리들을 위한 대응전략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넷째, 며느리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